



경기도 광명시 '#1388 청소년모바일센터'에 상담사 정선영·방우리·김현진·박성숙씨가 모였다(왼쪽부터). 이들은 청소년들을 상담한 경험을 나눴다. 안성식 기자

“폭력학교 낙인찍혔는데... 이제 와 사과가 무슨 소용”

이주호 장관 고개 숙였지만 특별연수 참석 교장들 싸늘

23일 오후 서울시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 대강당.

이날 시작된 전국 초·중·고 교장 특별연수에 참석한 서울지역 500여 명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무대 위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바라봤다. 이 장관은 교장 2명과 함께 대담형식으로 ‘학교폭력 대책과 주5일 수업제 정착’에 관한 정책 설명을 하나씩 해나갔다. 그러나 객석 반응은 싸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피해응답률과 일진인식률 등 통계적 의미가 없는 자료가 포함된 ‘폭력학교’ 명단을 공개해 혼란을 일으킨 점도 사과했다. (본지 4월 23일자 1면)

그는 “학교폭력 실태만 공개했어야 하는데 통계 자료까지 공개해 오류가 있었다”며 “충분히 실태조사와 공시의 취지를 알리지 못하고 언론에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미흡한 점을 개선해 학교폭력실태조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단 한 건의 폭력이라도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자

치지”라고 밝혔다.

전날 이 장관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엔 학교장이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며 “교장에게 부담을 줘 폭력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에서 계속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을 줘야만 학교와 지역사회·학부모가 함께 움직여 폭력 근절이 가능하다”며 “개별 학교의 폭력 실태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사과에 대해서도, 특별연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냉담한 반응이었다. 한 교장은 “이미 폭력학교로 낙인찍혀 교사들 사기가 다 꺾였는데 지금 와서 사과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장관이 학교를 범죄 소굴처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다른 교장은 “학교에서 금금한 것은 예산이 언제 얼마가 지원되고 현장에서 무엇보다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 하는 세부내용”이라며 “공문만 봐도 알 내용을 두고 특별연수라 부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만·김경희 기자
sam@joongang.co.kr

외롭고 겁날 땐 #1388 문자 치세요

문자 상담 ‘호루라기’ 누나들

지난해 2학기 초, 김경미(가명·12)양은 학교에서 맞이하는 점심시간이 두려웠다. 어려운 집안 형편이 알려지면서 반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었다. 놀림을 피하려고 점심시간엔 화장실에 머물며 미리 가져간 빵으로 대신했다.

그러다 우연히 청소년 대상 휴대전화 문자상담서비스인 ‘#1388’을 알게 됐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혼자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상담사의 답신이 바로 도착했다. ‘친구는 왜 거기 있는 거죠? 밥 함께 먹을 친구가 없나요.’

문자 상담은 서너 달을 이어갔다. 김양은 학교·학원을 오가는 틈틈이 문자를 보냈다. ‘ 쌤님(선생님)은 격려와 조언을 이어갔다. ‘다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요.’ ‘놀리고 때리는 아이에겐 싫다, 아프다고 분명히 말해요.’

김양은 그 뒤 ‘함께 밥 먹고 노는 친구가 생겼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의 ‘청소년모바일센터’ 사무실에 ‘#1388’ 상담사 네 명이 모였다. ‘#1388’은 학교폭력, 성적 비관, 가출 등 청소년의 고민을 휴대전화 문자로 상담하는 서비스다. 재택근무하던 이들이 모처럼 직접 만나 경험을 나눴다. 앞서의 김양 사례도 소개됐다. 새 학기 이후 모바일 상담사들은

고민하는 아이들 친구

“화장실에서 나홀로 점심 문자 격려로 교실 돌아가”

한층 바빠졌다고 한다.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을 기폭제로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상담 건수도 늘었다. 정선영(44)씨는 하루에 20~30건을 상담한다. 이 중 서너 건은 학교폭력 관련이다. 정씨는 “아이들이 예전엔 무심코 지나치던 욕설, 따돌림도 ‘학교폭력 아니냐’며 묻는다”고 전했다.

1년7개월여간 문자 상담을 해온

방우리(31)씨는 최근 친구들로부터 ‘빵셔틀(심부름)’을 강요받는 중학생을 상담했다. 방씨는 ‘부탁을 들어주지만 말고 싫다고 표현하라’고 설득했다. 한 달 뒤 학생으로부터 ‘이제 정말 심부름 안 해요’라는 문자가 왔다. 방씨는 “따돌림당하는 아이는 스스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특히 자신이 태도를 바꾸면 친

길고 긴 트라우마

“초등학교 때 왕따였던 아이 대학 가서도 불면증 고통”

구도 변화한다는 걸 깨닫기 쉽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사들은 폭력·욕설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록으로 남기고 교사와 부모에게 알려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따르지 않는다. 박성숙(44)씨는 “어렵게 결심해 털어놔도 부모나 교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폐해로 ‘길고 긴 트라우마’를 꼽았다. 정씨는 올해 서울로 상경한 대학 신입생을 예로 들었다. 그가 매일 밤 겪는 불면증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초조함이 원인이었다. 상담에서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에 시달렸음을 알게 됐다. 정씨는 “마음의 상처는 새 학년, 새 학교에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1388’ 상담사는 총 27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자격증과 상담 경력을 갖춘 이들이다. 때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상담사들은 학교폭력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최근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친구를 어떻게 돕느냐’고 묻는 청소년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 상담 경력 8년차인 김현진(31)씨는 “방관하던 아이가 ‘누가 맞고 있는지 선생님께 알렸다’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먼저 인사했다’는 문자를 보낼 때면 희망이 살아있음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멈춰! 학교폭력 운동 동참하려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단체·개인 등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업·기관 차원의 ‘멈춰! 학교폭력’ 운동 동참도 환영합니다. e-메일(school@joongang.co.kr)을 보내 주세요.

▶멈춰! 학교폭력 운동 동참 기업·기관·단체

법무부,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청교육지원청, 서울시의회, 서울강남구청, 서울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교원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태권도협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메가스터디, 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대한팔씨름협회

Think U, Smart KU

건국대학교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KU 건국대학교
KONKUK UNIV.

대학원 서울 grad.konkuk.ac.kr 글로벌 grad.kku.ac.kr 서울 - 석사과정 60개학과/2개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59개학과/1개 학과간 협동과정 글로벌 - 석사과정 24개학과/박사과정 15개학과 ▶원서접수: 서울 5. 3(목)~5. 11(금), 글로벌 5. 8(화)~5. 25(금) ▶문의: 서울 (02) 450-3263~4, 글로벌 (043) 840-3232~5	건축전문대학원 www.gsaku.ac.kr 건축설계학과/실내건축설계학과(석사 박사과정) 도시와 건축, 실내와 공간을 창조하는 종합 전문가 양성 ▶원서접수: 5. 14(월)~5. 25(금) ▶문의: (02) 450-3286~7	경영전문대학원(MBA) mba.konkuk.ac.kr TOP MBA(아간, 주일) 기술과 경영을 한 번에, 신학연계 실무중심 교육, 다양하고 파격적인 신입생 장학혜택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의 최대 100% 지급) ▶원서접수: 1차) 5. 14(월)~6. 1(금) 2차) 6. 18(월)~7. 6(금) ▶문의: (02) 450-0505, 3301~2	행정대학원 pagrad.konkuk.ac.kr 정책·공공경영학과/세무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법무학과/도시및지역계획학과/국가정보학과 ▶원서접수: 5. 14(월)~5. 25(금) ▶문의: (02) 450-3271~2
교육대학원 서울 sedu.konkuk.ac.kr 글로벌 ky.kku.ac.kr 교육학 석사 서울 23개 전공, 글로벌 7개 전공,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부여 해외 7개국 9개 국제학교 현장실습파견 ▶원서접수: 서울 5. 8(화)~5. 16(수), 글로벌 5. 8(화)~5. 25(금) ▶문의: 서울 (02) 450-3282~3, 글로벌 (043) 840-3234	산업대학원 gse.konkuk.ac.kr 전기공학과/건축공학과/토목공학과/산업경영학과/환경공학과/생물공학과(외인학전공 등)/항공학과/방위사업학과/골프산업학과(신설예정) ▶원서접수: 5. 14(월)~5. 21(월) ▶문의: (02) 450-3292	농축대학원 nongchuk.konkuk.ac.kr 생명자원학과/바이오식품공학과/축산자원생산학과/식품산업정보공학과/식품유통경제학과/응용수의학과/생물공학과/신림조경학과/원예치료학과/원예치료전문가심화과정/생명자원최고위과정 운영 ▶원서접수: 5. 21(월)~6. 1(금) ▶문의: (02) 450-3312	언론홍보대학원 mass.konkuk.ac.kr 디지털·문화영상콘텐츠 시대 미디어 변화를 이끌 인재 양성 언론·출판학과/방송통신융합학과/광고·홍보학과/스피치&협상최고경영자과정/한국문화콘텐츠최고위과정 운영 ▶원서접수: 특별전형 4. 30(월)~5. 11(금) 일반전형 5. 21(월)~6. 1(금) ▶문의: (02) 450-3276~7
정보통신대학원 wonwoo.konkuk.ac.kr 정보통신 관련 '공학·경영학 통합 교과과정' 운영 시스코·오라클사의 국제공인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IT 융합/유비쿼터스 컴퓨팅/정보보안/정보시스템 관리 - 공학석사 프로젝트관리·기술경영 - 경영학석사 ▶원서접수: 5. 14(월)~5. 31(목) ▶문의: (02) 450-3561~2	디자인대학원 designgs.konkuk.ac.kr 'Good Design'을 창출하는 디자이너 및 전문가 양성, 패션마케팅/시각정보디자인/실내환경디자인/미술치료/뷰티디자인/패션디자인/전통복식디자인/공공디자인/미술치료전문가과정/침선전문가과정 운영 ▶원서접수: 5. 7(월)~5. 18(금) ▶문의: (02) 450-3306~7	부동산대학원 gsres.konkuk.ac.kr 동북아 부동산학의 허브, 부동산경영 관리/부동산건설·개발/부동산금융·투자/글로벌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원서접수: 5. 16(수)~5. 24(목) ▶문의: (02) 450-3316~7	사회과학대학원 sh.kku.ac.kr 경찰법무/행정학/사회적 기업학/경영학/국제통상학/골프산업경영/부동산학 ▶원서접수: 5. 8(화)~5. 25(금) ▶문의: (043) 840-3233